

‘추경·통상·민생’... 광주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NEWS

2025년 4월 1일 화요일

탄핵 지연 국민갈등·경제적 불확실성 등 위기에 대응 강기정 시장 주재 일일상황회의→경제점검회의의 전환 AX실증밸리 등 추경 총력·관세·위니아 등 신속대처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으로 국민 갈등, 경제적 불확실성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추경·통상·민생’ 3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1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국장단과 매일 아침 진행하는 일일상황회의를 탄핵 선고 때까지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로 전환한다”며 “추경·통상·민생경제의 일일 점검을 통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2·3 계엄사태 이후 현재 탄핵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길고 무거운 118일의 민생경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며 “국민 갈등과 경제위기는 어느 때보다 컸고, 4월 2일 상호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무역전쟁으로 지역 제조업과 수출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강 시장은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체제 우려는 현실화됐고, 소비는 어느 때보다 위축돼 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분야(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10조원 추경 추진 계획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광주시는 추경과 통상, 민생경제 대응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매일 아침 시장 주재로 열리는 ‘일일상황회의’를 탄핵 선고 때까지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로 전환, 비상상황체제에 돌입한다.

이는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예고, 글로벌 무역전쟁 전면전 확산, 자영업 폐업 최고치 및 내수침체·소비위축 등 통상·민생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위기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부시장과 실국장 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경제상황점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탄핵 선고 때까지 추경·통상·민생 분야에 대한 각 실국

별 이슈 및 긴급대응체제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추경’은 양 부시장을 중심으로 추경대응반을 운영해 미래투자와 민생안전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AX(인공 지능 전환) 실증밸리 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미래차 사업, AI영재고 사업 등의 예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AX 실증밸리 등 미래산업 추경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통상’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수출경쟁력강화지원단과 중소기업위aggi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는 착한소비, 선결제 등 올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에 대한 점검과 참여기관 확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기 지원과 대응체제도 강화한다.

또 지난해부터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대우위니아에 대한 대응에도 진력한다. 광주시는 1일 ‘2차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이들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도시철도 2호선 교통개방구간 안전점검 31일 광주 서구 용암저수지사거리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기강 서구청장이 주민들과 함께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 교통개방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수기, 美 관세 위기 수출기업 긴급 대책 촉구

박수기 광주시의원(민주당·광산5)은 3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국 관세 위협 등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니아전자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역장벽의 현실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자동

아 그룹이 1200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파산 절차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며 “위니아 사태의 경우 기업 인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관세 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수출 기업들의 피해와 전통 제조업 분야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긴밀한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 10년 연속 흑자 성과 도민과 나눈다

창립 최초 전남도에 100억원 배당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남도에 100억원을 배당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3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제174회 이사회에서 경영성과와 재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4년도 당기순이익의 290억원 중 100억원의 배당을 의결·결정했다. 이번 배당은 정부 교부금 축소, 지방소멸 대응 등 전남도 재정 여건 등이 고려됐다.

이같은 결심은 전남개발공사의 지속적인 경영 개선 노력과 성과 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직원이분양도 지 판매에 총력을 기울였고,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통해 이익 감소 요인을 사전 예측해 사업별 공정을 관리, 철저한 원가심사 등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 당기순이익 290억원을 기록, 10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부채비율도 26%로 창립 이래 가장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금융부

채비율은 14%로,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당기순이익의 10%를 기부, 총 218억원을 지역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기부했다. 이번에는 도민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환원을 위해 첫 배당을 시행,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장했다.

장승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창립 이래 첫 배당을 실현,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이번 배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봄꽃 만발하는 4월 전남으로 여행 오세요”



도, 여수 하화도·완도 청산도·진도 관매도·신안 임자도 추천

전남도는 꽃피는 4월 다도해를 풍경으로 봄꽃을 만끽할 여행지로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를 추천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수 하화도는 ‘꽃섬’이라 불릴 만큼 봄이 되면 섬 전체가 꽃으로 가득하다. 해식 절벽의 경관과 진달래, 유채꽃, 아생화가 만발한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해안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탐방로(꽃섬길)를 걸으며 꽃과 바다, 한려해상의 비경을 만끽할 수 있다.

여수는 도다리회가 맛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해풍 맞고 자란 속으로 끓인 도다리국도 꼭 먹어봐야 할 봄철 별미다.

완도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봄이면 구들장은 주변에 유채꽃이 장관을 이뤄 그림 같은 풍경이 연출된다. 오는 5일부터 5월 4일까지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열린다.

진도 관매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해식절벽과 해식동굴이 아름다운 섬이다. 넓은 유류 농경지를 활용한 유채꽃밭은 매년 상춘객들로 가득하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봄베스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유채꽃을 활용한 페이스 페인팅, 열쇠고리 만들기, 진도 전통놀이, 서화 체험을 통해 진도의 정취를 느껴보고, 관매도의 특산물인 톳을 이용한 톳깍국수, 톳반대떡, 톳튀김 등을 맛볼 수 있다.

신안 임자도는 신안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이곳 대광해수욕장의 12km 광활한 백사장과 해송숲을 배경으로 삼백만 송이가 넘는 톳림 정원이 조성돼 매년 남녀노소 관광객의 사진명소로 인기가 많다.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섬 탐방 축제’가 펼쳐진다. 형형색색 드넓은 톳림 꽃밭은 마치 유럽의 정원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봄철에 특히 맛있는 유채, 보리송이버섯, 간재미허 등 인근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의 봄은 꽃피는 계절이 오면 아름다움이 배가 된다”며 “택 트인 다도해 풍광과 활짝 핀 유채꽃을 즐기고 싶다면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에 꼭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범국민 지지서명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

미래 세대를 위해! 건강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담배소송이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담배회사(주요: &g, (주)한국필립모리스, (주)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서명운동 참여 방법

온라인

QR코드 스캔 또는 전송된 링크로 작성 제출

지시서명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지시서명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출